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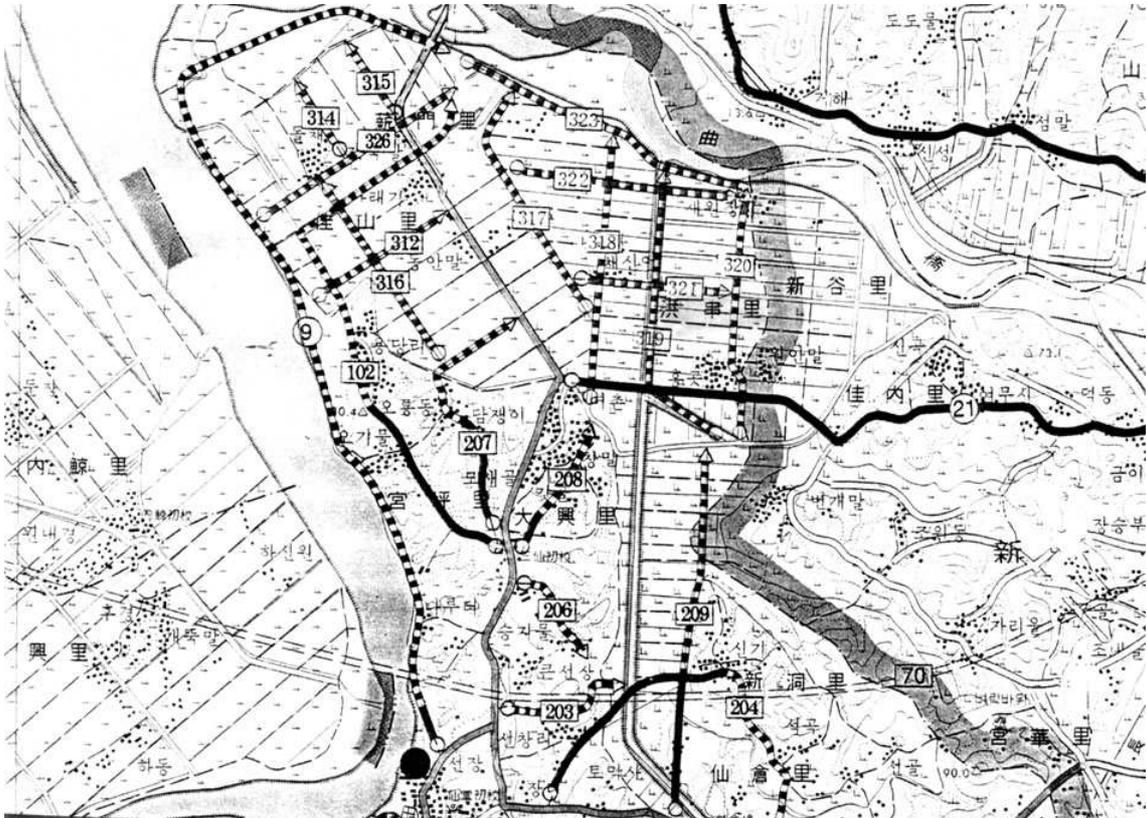
홍곶리·洪串里

선장면의 한 마을로 하나의 자연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의 호구수는 총 45호로 150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축산업 10%, 기타 6%에 종사하고 있다.

홍곶리에 제일 먼저 터를 잡고 산 성씨는 장씨로써 의관이라는 사람이라고 한다. 4대에 걸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4명 뿐이다.

홍곶리는 본래 천안군 돈의 면의 지역인데, 지형이 곶과 같이 되었으므로 홍곶이 또는 홍관이라 하였는데 고종32년(1895)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신창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홍곶리라 하여 아산시 선장면에 편입되었다.

<홍곶리 위치도>



⊠ 홍곶마을

홍곶이 또는 홍관이라 불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홍곶이라 부르고 있다. 이곳은 평야지에 유일하게 조그만 산이 하나 있으며 그 산이 노의 넓은 꼭지와 같다하며 홍곶이라 하였다는 유래가 있었다. 홍곶리는 행정구역명과 자연 부락명이 같은 곳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농촌 평야마을로 수령 3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지키고 있으며 경주김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조사당시 홍곶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이 마을은 위도 36-48-40, 경도 126-52-40인 마을에 위치해 있다. 온양 중심지에서 예산 방면 국도를 따라 약 2-3km쯤 가면 오른쪽으로 신창방면 국도가 나온다. 이 도로를 따라 약 7km쯤 가다보면 오욕리라는 곳이 나오며, 이곳에서 신장 방면으로 약 9km쯤 더 가면 국도변 오른쪽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2) 현 황

홍곶리는 신장면의 한마을로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된 마을이다. 인구는 남자 76명, 여자 74명으로 150명이 살고 있으며, 호구수는 45호에 이른다. 주민들 9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분포

| 구 분 마을명 | 계 | 남 | 여 |
|------------|------|-----|-----|
| 홍곶리 | 150명 | 76명 | 74명 |

- 생업

| 구 분 마을명 | 계 | 농업 | 축산업 | 기 타 |
|------------|------|-----|-----|-----|
| 홍곶리 | 100% | 91% | | 9% |

농경지 현황을 보면 밭은없고, 논만 75ha로 논농사를 짓고있으며, 농기계보유에서는 경운기 33대 트랙터 9대 등을 구비하고 있다.

- 농경지 현황

| 구 분 마을명 | 계 | 논 | 밭 |
|------------|---|---|---|
| | | | |

| | | | |
|-----|------|------|--|
| 홍곶리 | 75ha | 75ha | |
|-----|------|------|--|

- 농기계 현황

| 구 분 마을명 | 경운기 | 트랙터 | 분무기 | 이앙기 | 관리기 | 콤바인 |
|------------|-----|-----|-----|-----|-----|-----|
| 홍곶리 | 33대 | 9대 | 18대 | 20대 | 1대 | 10대 |

홍곶리의 문화시설은 마을회관 1동, 앰프 1대, 농악기구 1조를 가지고 있으며 연령분포에서는 40대와 50대가 많아 중년층의 비중이 큰 것을 알수 있다.

- 문화시설

| 구 분 마을명 | 마을회관 | 앰프 | 농악기구 | 기타 |
|------------|------|----|------|----|
| 홍곶리 | 1개 | 1개 | 1조 | |

- 연령별 분포

| 구 분 마을명 | 1-10 | 11-20 | 21-30 | 31-40 | 41-50 | 51-60 | 61-70 | 71-80 | 80이상 |
|------------|------|-------|-------|-------|-------|-------|-------|-------|------|
| 홍곶리 | 20명 | 25명 | 12명 | 13명 | 30명 | 28명 | 13명 | 5명 | 4명 |

홍곶리에서는 김씨가 전체의 20%로 가장 많이 살고 있다.

- 성씨별 분포

| 구 분 마을명 | 김씨 | 장씨 | 이씨 | 민씨 | 정씨 | 강씨 | 기타 |
|------------|-----|----|----|----|----|----|-----|
| 홍곶리 | 20% | 4% | 3% | 2% | 3% | 2% | 66% |

- 학생 분포

| 구 분 마을명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
| 홍곶리 | 6명 | 4명 | 5명 | 12명 |

- 최고령자

홍곶리의 최고령자는 92살의 조명남 할아버지

- 호당 평균소득

년/1,200만원

3) 자연 경관

행정구역명과 자연부락명이 같이 홍곶리고 불리어지는 이 마을은 평야지대로써는 유일하게 조그만 산이 하나 있으며, 그 위에는 옛날 이곳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닿을 적에 심었다는 고목(느티나무)이 한 그루 서 있으며, 수령300년의 이 나무를 서기 1971년도에 아산군 나무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4) 변 천

천안군 돈의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곶과 같이 되었으므로 홍곶이 또는 홍관이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지방관계 개정에 의하여 신창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홍곶리라 하여 아산시 선장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장씨성을 가진 의관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터를 잡고 살았으며, 4대가 이어져 내려오며 살아간다. 그리고 지금은 경주김씨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6) 지 명

홍곶이 : 평야지에 유일하게 조그만 산이 하나 있으며 그산이 노의 넓은 젓곡지와 같다하여 홍곶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다. 또 옛날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닿을 때 심었다는 느티나무 (수령300년)가 서 있다. 1971년 아산군 나무로 지정됨.

새원장 : 홍곶이 옆에 있는 마을로써, 새로 언을 쌓고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 언장이라 하였는데, 변하여 새원장이라고 한다.

갈신원-들 : 홍곶이 북쪽에 있는 들로써, 예전엔 갈대가 많았다하여 갈신원들이라 한다.

군수목 : 홍곶이에 있는 수령 300년된 느티나무로써, 1971년에 아산군 나무로 지정된 느티나무

뒷 들 : 홍곶이 뒤에 있는 들

서 번 : 홍곶이 앞에 있는 들

7) 전설

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설은 조사되지 않았음.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 제사

시향차리 : 매년 정월 보름날에 행하여지며, 군수목을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한식차리 : 마을의 발전을 위해 지내는 제사로써, 매년 한식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 계

상폭계 : 마을에 애경사가 있을 때 부조금을 내서 돕는 형태의 계.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10) 종교 단체

이 마을에는 종교단체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몇몇 주민들은 가까운 주변의 교회나 절등을 찾아간다고 한다.

11) 공장 현황

이 마을에서 현재 가동중인 공장은 조사되지 않았다.

12) 마을의 특성

전형적인 농촌 평야 마을로 수령 3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지키고 있다. 또한 나무가 시목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 마을 사람들의 애향심이나 자부감이 매우 높다. 이로인해 마을 주민간의 화합이나 협동심이 좋아 환경 친화적 운동으로 분리수거 청결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자랑할 만한 사실이다.